



"친정 가면 자루 아홉 가지고 온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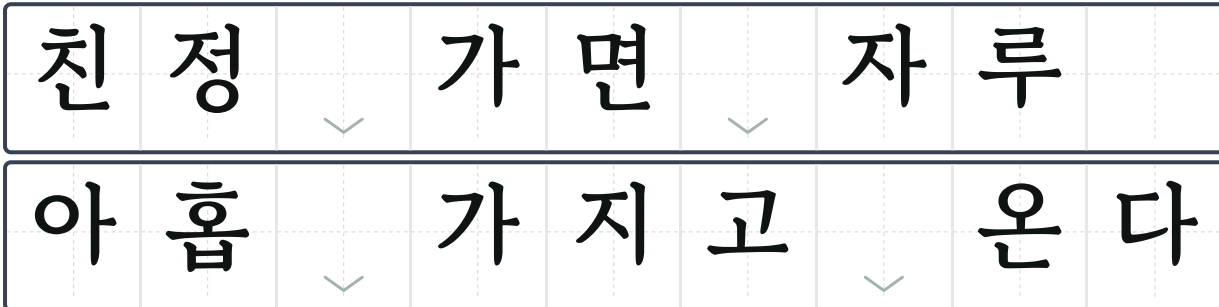
뜻: 결혼해서 집을 떠난 딸이 친정에 가면 이것저것 최대한 많은 것을 챙겨 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. 친정 부모님의 사랑과 넉넉한 마음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수취 · 욕심 · 재물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ㅈㅈ] [ㄱㅁ] [ㅈㄹ] [ㅇㅎ] [ㄱㅈㅈ] [ㅇㄷ]

웹에서 보기

